



무주군은 9일 군청 앞에서 무풍면과 설천면 두 곳에 복지차량을 전달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무주군, 무풍면·설천면 두 곳 복지차량 전달 복지공무원 안전지킴이 스마트 워치 보급 등

무주군은 9일 군청 앞에서 무풍면과 설천면 두 곳에 복지차량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차량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달된 것으로 앞으로 두 지역 복지대상자 상담을 위한 방문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발굴, 민·관 지원을 연계·지원, 지역사회 자원을 관리하는 등의 다양한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김완식 희망복지 담당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과 가까운 지역 복지 중심기관으로 변화시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복권기금)와 환경부로부터 지원 받은 국비와 군비를 합친 기금(1억 6천 6백만 원)으로 복지차량을 구입해 지난해부터 6개 읍면에 보급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무주읍과 안성면에 전기차량 각 1대, 적상면, 부남면에 가솔린 차량 각 1대씩을 보

급했으며 9일에는 올 3월 맞춤형 복지 팀이 신설된 설천면과 무풍면에도 가솔린 차량을 각 1대씩 보급했다. 한편, 방문 상담이 잦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워치(복지공무원 안전지킴이)도 보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마트 워치는 응급 상황 시 호출과 현장 녹취 등이 가능하며 경찰 시스템과도 연계돼 있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각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복지차량이 들어오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살피고, 도움을 드리는 일이 훨씬 수월해지고 찾아졌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접수

이달 말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접수

진안군은 2018년 축산분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염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2017년 염소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염소 가격 하락으

로 더 이상 사육이 어려워진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등이다. 특히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한 농가다. 군은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후 연내 직불금과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락한 염소 가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많은 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염소 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장수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자신청을 공고기간을 거쳐 지난 19일~31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최대 중소기업 2억, 소상공인 3,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 2%, 상환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 1년연장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 및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체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한 5인 미만의 신용등급 4등급 이상인 소상공인 대상이다. 군은 사전 대출기관의 상담을 통해 용자신청의 실효성을 높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용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여름휴가철 관내 휴양지 사전 점검 추진

12일 방화동가족휴가촌 와룡자연휴양림 안전 점검

장수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주요 피서지 및 관광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여름철 관내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12일 방화동가족휴가촌과 와룡자연휴양림 시설 전반에 대하여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놀이 취약지역의 구명로프, 구명환, 구명 등 인명구조장비 훼손 여부와 추가 배치를 하고, 안전표지판과 인명구조함 파손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할 방침이다. 한편 물놀이 취약지역의 구명로프, 구명환, 구명 등 인명구조장비 훼손(6.1 ~ 8.31일)에는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현장 배치해 물놀이 사고 재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편 물놀이 취약지역의 구명로프, 구명환, 구명 등 인명구조장비 훼손(6.1 ~ 8.31일)에는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현장 배치해 물놀이 사고 재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주택 및 건축물 1만815건 7월 정기본 재산세 8억 5천만원 부과

장수군은 지난 6일 주택 및 건축물 1만815건에 대한 7월 정기본 재산세 8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택본 재산세의 일시납부기준액이 상향돼 세액 기준 20만원 이하는 이번 달 한 번에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 번에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씩 나눠 7월과 9월 부과되어 왔으나, 납세자 편의와 부과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4월 '장수군 군세 조례'를 개정, 주택본 재산세 일시납부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장수군 관계자는 "일시납부액이 10~20만원대로 기존 2회에 걸쳐 과세되던 주택소유자들이 올해부터는 한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성수면 포동마을에서 8월 말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물이 맑고 차가워요”

진안군 성수면 포동마을, 물놀이장 개장

비라도 쉬어가며 물이 맑고 차가워 소문난 진안군 성수면 포동마을에서 8월 말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포동마을은 인근도시 주민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 중 하나로 민박, 평상, 카페, 찜질방,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전통음식 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강신오 포동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지난 6월 중순부터 물놀이장 보수를 끝내고 마을주변을 청소하는 등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다. 물놀이장 마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해석 성수면장은 “농번기에 바쁜 외중에도 선풍 귀한 시간을 내 물놀이장을 준비하는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마을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더불어 잘 사는 포동마을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배갑용 포동마을 개발위원장은 “주민들과 작지만 큰 정성으로 시작한 물놀이장이 올해도 개장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무더위도 날리고 건강한 여름을 약속하면서 앞으로도 포동마을과 성수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한우 명품관서 수입산 정육 장수굴 꺼먹돼지로 표시·판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수한우명품관 판매장에서 수입산 정육을 '장수랑'이라는 명칭으로 장수굴꺼먹돼지로 표시·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9일 마트 관계자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재협조 요청이 없는 관계로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수군 담당자에 확인 한 결과 “군 관계자는 매월 1회씩 현장 점검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입정육을 판매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매월 현장 점검이 형식적이고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수=고관호 기자